

국제 교역의 노동시장 영향

방형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약 40%에 이르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그 못지않다. 대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2004년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2011년 유럽연합, 2012년 미국, 2015년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 FTA를 체결하여 무역 장벽을 낮추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각국이 자국 위주의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는 경향이 늘어 왔고,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는 세계 교역 시장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생산망을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과거 20년간 추진해 온 FTA를 비롯한 국제 교역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현시점 이후 글로벌 공급 사슬 재편 과정에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시 국제 교역이 활성화될 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현상들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교역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교역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교역 당사국들의 특성, 교역품의 종류, 교역의 형태 등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단선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두 교역 당사국이 서로 비교우위가 있는 완제품을 각각 생산하여 거래하는 분업에 가까운 경우와 하나의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에 두 나라가 참여하여 협업한 후 최종재를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는 교역의 양상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 또한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교역품의 특성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 공산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가, 아니면 해외직접투자(FDI)를 통해 현지에서 직접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가 등 교역의 종류나 양태에 따라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은 상이하다.

이때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접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장 및 생산기지의 이전으로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국내 고용이 감소할 수도 있다. 공산품의 수입과 수출은 국내 총고용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어떠한 제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느냐에 따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bangh@kli.re.kr).

라 고속런 직종과 저속런 직종에 다른 효과를 내어, 총고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직군이나 직종 구성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아울러 이러한 충격은 단순히 고용의 양에만 한정되지 않고 특정 직군의 임금을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기도 하며, 근로시간이나 고용 형태 등 고용의 질적 측면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번 『노동리뷰』 특집에서는 국제 교역이 국내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세 가지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글로벌 공급 사슬 구조를 고려하였을 때, 국제 교역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각자 생산한 최종재를 서로 수출입하는 교역이며, 다른 하나는 단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각 생산 단계를 국가별로 분업하는 수직적 계열의 교역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고소득 국가와는 최종재 및 서비스를 주로 교역하며, 동남아 등의 저소득 국가와는 수직적 생산 구조에서 원재료 및 일차 가공품이나 부품을 하청한 후 이를 수입하는 형태의 교역을 하고 있다. 본 호에서는 유럽과 미국이라는 고소득 국가, 최종재 교역과 수직적 분업이 섞인 중국, 그리고 수직적 생산 사슬을 형성하여 교역하는 저소득 국가들로 구성된 동남아시아, 이렇게 세 집단과의 상이한 교역이 국내 노동시장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교역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것인데, 중국 및 베트남과의 교역에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고용량에 미친 효과를, 유럽 및 미국과의 FTA를 통해서는 다양한 직종 및 숙련 수준에 따른 임금의 변화를, 그리고 신남방 지역과의 교역에서는 근로 조건을 포함한 고용의 질 측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본 연구를 소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역이 국내의 고용 수준에서 일으킨 변화만이 아니라 고용 관계, 임금, 근로시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와 영향을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교역이 정상화되면 대외 교역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내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다른 집단에는 위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국제 교역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내 노동시장에서 나타날 변화의 단면을 예상해 볼 수 있다면,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보다 건설적이며 효과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KLI**